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 7

활랑리 터줏대감, 우덕수의 이야기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활랑리 터줏대감, 우덕수의 이야기

활랑리 터줏대감, 우덕수의 이야기

강호근·김동희·김현지·노재훈
류지연·박경석·신해영·윤소영·장지희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7

활랑리 터줏대감, 우덕수의 이야기

구술자 우덕수

지은이 강호근·김동희·김현지·노재훈

류지연·박경석·신해영·윤소영·장지희

엮은이 장지희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조태권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우덕수 · 성북문화원, 2022

ISBN 979-11-954544-8-8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김지훈·장지희

주민들의 생생한 삶을 담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함께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북의 기록을 발굴하고 한데 모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기록과 성북학 자료의 축적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인 ‘성북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축적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서도 성북구 주민기록단 양성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마을기록화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운영으로 시작된 주민기록단 교육은 2022년, 현재까지 한 해에 두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는 이러한 주민기록단 교육의 결과물로, 2020년에는 제1~3권, 2021년에는 제4~5권이 발간되었으며 올해 역시 구술자 두 분의 이야기를 담아 새로이 두 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자에는 ‘성북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시선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북이라는 공간 속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통해 남아 있는 구술자 분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새로운 구술사적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구술생애사 책자의 주인공 두 분은 각각 보문동과 장위동의 토박이입니다. 한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겪고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며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많은 것들을 꺼내어주신 구술자 두 분의 삶의 체험은 성북구 주민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성북의 숨겨진 이야기를 새로이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 자산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장위동과 보문동, 성북의 새로운 이야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북이라는 공간에 대해 큰 애정을 품으시고 8주간 진행된 교육과 과제에 성실히 임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술생애사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생생한 삶을 이야기로 들려주신 두 분의 구술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열정과 섬세함으로 주민기록단 교육을 이끌어주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기록단의 교육과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노력하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북문화원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성북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고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조 태 권

축사

다시 모인 우리, 다시 쓰는 성북의 역사

2020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이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가 코로나로 고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언제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불편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2년에는 상황이 나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활동들을 예전처럼 대면 접촉을 통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북구 주민 기록단 활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6주간의 교육, 그리고 하반기 8주간의 교육 모두 함께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기록단 활동의 핵심이 대면 접촉을 통한 구술면담이라고 했을 때, 관련 교육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성별, 연령대, 주거지, 직업 등도 다채로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구술면담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성북구 토박이 두 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구술을 채록, 정리하여 간행한 이 책은 2022년 하반기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의 성과이자 최종 결과물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활동 과정에서 구술을 해 주신 분은 박춘화님과 우덕수님이십니다. 박춘화님은 보문동에서 나고 자라셨고 우덕수님은 장위동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성북구의 토박이로서, 성북구의 과거 모습과 변천사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술사는 국가나 민족 중심의 기존 역사 서술에서 소외된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유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성북구 토박이 두 분의 구술은 성북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간행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장시간 구술을 해 주신 두 분 구술자, 박춘화, 우덕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열심히 구술사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구술면담에 나선 성북구 주민기록단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민기록단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성북문화원 선생님들께도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점차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함께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이 더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2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성북구의 동북쪽에 위치한 장위동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으며, 이 일대에 위치하던 여러 마을이 합쳐져서 장위동이라는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선 후에는 도시 개발로 경관이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들어섰고, 택지 개발로 부촌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장위뉴타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화의 큰 변화를 겪은 장위동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도 많지만,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토박이’도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바로 우덕수 님입니다. 장위동에서 태어나 현재 까지 그곳에 생활 터전을 두고 계신 우덕수 님은 동네의 변화를 지켜보신 장위동 역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들려주신 우덕수 님의 구술 내용에 따라 ‘1부 활랑리 토박이 우덕수입니다’, ‘2부 꿈이 있던 학창시절’, ‘3부 청년에서 아버지로’, ‘4부 나의 고향 장위동 이야기’, ‘5부 변화 속 여전한 나의 생활 터전’ 총 5부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에는 구술자의 출생부터 부모님과 형제 이야기와 함께 어린 시절 동네에서 겪었던 체험들을 담았습니다. 당시 거주하시던 집의 구조부터, 누나와의 추억 등 유년 시절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들

려주신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2부의 주제는 우덕수 님의 학창시절입니다. 꿈이 있었던 그 시절 구술자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부는 아내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신 식당을 개업할 당시의 이야기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부에는 구술자의 고향, 장위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우덕수 님이 알고 계신 동네의 옛 지명들부터 당시의 풍경, 그 안에서 보고 겪었던 다양한 일들과 함께 장위동과 연이 깊은 덕온공주 일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5부의 이야기는 장위동의 도시화로 이어집니다. 급변했던 동네의 경관에 대해 생생히 들려주셨으며, 끝으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터전으로 남아 있는 장위동에 대한 애정 어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한 지역의 변화를 오랜 시간 지켜보신 우덕수 님의 구술을 통해 이 책에는 한 개인의 역사, 나아가 장위동이라는 공간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장위동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장 지 희

차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활랑리 토박이 우덕수입니다	17
--------------------------	-----------

제삿밥을 잡수시고 저를 낳으셨어요	19
나의 부모님과 형제	21
일자형 집부터 ‘ㄱ’자형 한옥까지	25
동네에서의 어린 시절	27
하루 세끼만 잘 먹어도 감사했죠	31

2부 꿈이 있던 학창시절	33
----------------------	-----------

장위초등학교 15회 졸업생	35
토박이는 토박이들끼리	38
가수가 꿈이었어요	39
출입할 수 있는 산은 다 가봤지	41

3부 청년에서 아버지로	47
날 알고 싶으면, 산에 갈 때 쫓아오시오	49
집사람이 참 대단해	51
아들 하나 딸 하나	52
활랑리 식당을 열다	53
고기를 배웠어요	57
 4부 나의 고향 장위동 이야기	 59
마을의 옛 지명들	61
아주 시골이었죠	66
동네에 있던 공장들	68
도살장과 부화장	69
뚝섬이 터졌다고 했어요	71
몇 개의 집성촌이 모인 곳	74
1년에 한 번 소를 잡았어요	75
덕온공주 일가 이야기	79
 5부 변화 속 여전한 나의 생활 터전	 85
도시화의 시작	87
주택이 개발되고 차편이 늘었죠	95
아파트 숲으로의 변모	97
향우회 총무 맡은 지 20년이 됐지	102
여전한 생활 터전, 장위동	105
 에필로그	 110
이미지 출처	114



약력

1952년 장위동 106번지에서 출생

1959년 장위동 69-53으로 이사

1965년 장위초등학교 15회 졸업

1968년 중학교 졸업

1971년 고등학교 졸업

1982년 서울신문사 입사

1983년 종암동 주신예식장에서 결혼

1984년 아들 출생

1986년 딸 출생

1991년 서울신문사 퇴사

1992년 ‘활량리’식당 개업

2002년 고깃집으로 업종 변경

2004년 활량리 향우회 총무 선출

2006년 현재 자리(화랑로 241-8)에 식당 재개업

2017년 우이동으로 이사

면담정보

1차

면담자: 김지훈, 장지희

면담장소: 장위동 활랑리 식당(화랑로 241-8)

면담일자: 2022년 9월 5일

2차

면담자: 김동희, 박경석, 신해영, 윤소영, 장지희

면담장소: 장위동 활랑리 식당(화랑로 241-8)

면담일자: 2022년 10월 6일

3차

면담자: 김지훈, 장지희

면담장소: 장위동 활랑리 식당(화랑로 241-8)

면담일자: 2022년 11월 17일

※ 사전에 진행된 생활사 기록가 백지연의 인터뷰 녹취록 참고

01

활랑리 토박이 우덕수입니다



제삿밥을 잡수시고 저를 낳으셨어요

●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제가 태어난 곳은 장위동이고요. 활랑리¹⁾라는 것도 맞고요. 장위동 토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7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장위동으로 이주하셔서 사셨다고 해요. 저는 1952년 10월 22일생입니다. 음력으료요. 한국전쟁 당시에 가족들이 어디로 피난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던 이야기로는 피난 다녀오시고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동네 이웃의 소상(小祥)이라는 제사상을, 밥을 얻어 잡수시고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절 낳았다고 하셨어요. 아

1) 성북구 장위동에 있던 마을로서, 조선시대에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일정한 일이 없이 놀고먹던 도성의 말단 양반 계층인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량리(閑良里)라고도 하였다. (출처: 서울지명사전)

마 새벽이었겠죠? 그 당시 때는 뭐 거의 밤 12시 넘어서들 제사를 지내니까.

저희 아버지의 본적지가 장위동 106번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위3동, 장위4구역 내인데 그쪽에 보면 막 중문도 있고 그런 큰 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말로 거기가 태어난 자리라고 그러시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집 뒤에 연못도 있었다고 그랬거든. 할아버지가 혼장을 하셨으니까. 아무튼, 저도 본적지는 장위동 106번지로 되어있어요.

● 선조께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나요?

원래는 파주 적성면에서 사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선조께서 고려시대 말에 시중을 지내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파주군 적성면 어유지리²⁾에 자리를 잡으셨대요. 그때 시중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국무총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묘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쪽에 가면 상당히 큰 묘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할아버지 세 분이, 삼 형제가 장위동으로 건너오셨는데 그중에서 장남은 김포 통진으로 가시고 둘째 분하고 셋째 분은 여기 와서 자리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묘지도 원래는 양주군이죠. 양주군 회천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 광운고등학교³⁾ 뒷산. 엄정계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모셨다가 지금은 어유지리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2) 어유지리(魚遊池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리(里)이다. 임진강 가에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마을이다. 임진강 가의 용못에 살았던 이무기를 고기에 비유하여 어유지라는 명칭이 생겼다. (출처: 두산백과)

3)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에 위치. 1934년 5월 20일에 개교하였다.

나의 부모님과 형제

●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전형적인 농사꾼이죠, 뭐. 아주 그냥 부지런하셔.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데 1908년생인가? 원숭이띠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그거보다 좀 적으시지 뱀띠이시니까 1917년생이실 거예요.

저 중학교 때만 해도 고기 먹는 게 어렵잖아요. 돼지고기가 됐든 소고기가 됐든. 명절이나 생일에 먹을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랑 생일이 비슷해요. 아버님은 10월 19일이고 나는 22일이라. 그럼 아버지 생신 때 끓여드리던 소고기 덩어리를 좀 남겨놔다가 내 생일 때 끓여주면 그걸 얻어먹고 그랬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농사를 지었으니까 거름을 만들잖아요.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지게에 그걸 퍼서 뿌리고 그 위에 짚단을 쌓아놔다가 그게 썩으면은 가지고 나갔거든요. 옛날엔 퇴비가 없었으니까. 내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아버님이 한 날,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줄 테니 같이 일 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혹 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고기 실컷 먹여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똥지게지. 거름지게. 그걸 지고 남의 집에 가서 변을 퍼다가 뿌리고 거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몇 집 푸고 나면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리밥에 총각김치 하나만 갖다 줘도 그게 꿀맛이야. 밥에 김치를 다 먹고 나서 고기 언제 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고기 먹었잖아?” 그러시더라 말이에요. 배불리 먹었

다 이거지.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요.

●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새마을운동 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새마을운동과는 거리가 먼 분인데 왜냐하면 고집스럽게 농사를 지으셔서.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낱알이 적더라도 맛있는 밥, 맛있는 쌀. 그 당시 때 제 기억에는 일본말로 아끼바리⁴⁾라고 그러죠. 좋은 쌀, 좋은 볍씨만 갖다가 심으셔서 새마을운동이란 거리가 머셔요.

● 농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월계역 지나서 인덕대학교⁵⁾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엄정계산 모퉁이 돌아가는 곳에 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다섯 마지기 정도 있었고. 성북역 너머, 지금은 광운대역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성북역이라 했고. 그전에는 연촌역이라고 그랬어요. 공릉동에 가면 연촌초등학교⁶⁾도 있어요. 초등학교 있는 그쪽 너머, 거기서도 농사를 좀 지으셨고.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농토를 좀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 노력하셔서. 할아버지 재산 있던 건 집안사람들이 다 나눠서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4) 일본에서 수입한 벼 품종. ‘아키바레(あきばれ)’의 비표준어.

5)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12에 위치. 1972년에 개교하였다.

6)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58길 36에 위치. 1945년 11월 10일 개교하였다.

저 어렸을 때는 집에 소도 키웠죠. 그때는 소를 키우면 그래도 조금 살만한 집이야. 소가 있으면은 쟁기질도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주변에 소 키우는 집이 많이 없으니까, 이웃집에서 농사지를 때 우리 소 데려가서 돈 조금 받고 일해주시고 그러셨지. 밭 갈아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밭 갈아주고 일당 받고 이러시는 거지.

제가 중학교 때는 분당에 가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동네에서 농사 지으시던 걸 정리하고 분당 옆에 이매리⁷⁾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매 아파트 옆, 도로가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가봤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처에 국군수도병원⁸⁾이 있고. 저수지 바로 밑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방을 하나 얻어서 모내기하고 이럴 때 며칠씩 계셔야 하니까, 거기서 잠깐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타작할 때도.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쯤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분당에서 한 4, 5년 정도 하시고 좀 있다 돌아가셨죠. 그때 트럭을 빌려서 아버지랑 같이 거름 다 싣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1960년대 후반쯤 돼요.

● 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청담동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경기도 광주군이었죠. 청숫골이라고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 가보면 집도 많이 없었고 배밭에, 참외밭에 이랬거든요. 청숫골에 있던 우리 외삼촌 덕에서 고개 하나 넘어가면 봉은사⁹⁾예요. 삼성동. 거기서 시집을 오셨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옛 지명. (출처: 디지털성남문화대전)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에 위치.

9)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에 위치한 사찰.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

어요. 저희 외가는 그래도 조선, 왕손 쪽이에요. 이(李)가거든요. 그 쪽에는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나은 집안이야. 우리 외갓집이.

●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실까요?

형님 두 분 계시고 누님 한 분 계세요. 제일 위가 형이고, 둘째가 누나 그리고 또 형 한 명 있고 제가 막내고. 생존자 중에서는 막내죠. 원래는 동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어려서 많이 사망하니까.... 밑에 아이가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 바람에 제가 우리 엄마 모유를 엄청 늦게까지 먹었다고 그래요. 내가 학교를 9살에 들어갔는데, 뭐 7살 인가 8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하니까 한참 먹었지. 모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건강했었어, 뼈쩍 말라도.

● 형, 누나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엄격했어요. 굉장히 고지식하지, 아주 보수 중에 그런 보수가 어디 있어. 우리 누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머리카락이 어디까지 갔냐면 엉덩이까지 내려갔어요. 못 자르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나야 못생겼지만, 우리 누나는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서 인기가 좀 많아서, 가설극장(假設劇場)¹⁰⁾에 내가 공짜로 여러 번 들어가 봤어. 그 앞에서 기웃거리면 남정네들이 와서 쪽지를 줘. 누나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들여 보내주고 그래서 극장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그 쪽지를 누나 못 주고 옛날엔 뒷간이라고 했죠? 화장실. 뒷간이 대문 바로 옆에 있거든. 가기

10) 노천에 말뚝을 박아 포장을 두르고 영화를 상영한 극장. 1970년대까지 상설극장이 없는 지역에서 인기를 누렸다. (출처: 위경혜, 『한국의 극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전에 갖다 버리고 들어가고 그랬지.

누나 따라서 많이 다녔어요. 청량리 로터리에 가면은 무슨 은행이더라, 기업은행인가? 있던 그 자리에 동일극장¹¹⁾이라고 있어. 동일극장 있고 좀 가면 오스카극장¹²⁾ 있고 그 옆에 무슨 극장이더라? 하 여튼 그쪽에 극장이 몇 개가 있었어. 역 앞이니까. 동일극장도 누나 따라서 몇 번 공짜로 가 봤어. 형들하고는 친한 적 없어요. 신나게 맞기만 했지 내가.

일자형 집부터 ‘ㅁ’자형 한옥까지

●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집이 기억나실까요?

일자 집이에요. 일자로 된 집. 행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고. 안채에는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 근데 일자예요 그냥. 그리고 행랑채에 소가 있었고, 외양간.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고. 세 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안방하고 건넌방하고. 그다음엔 마루. 옛날엔 마루에 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제사를 모시면 발이 시려서…. 그리고 더운물이 없으니까 찬물에 얼굴 씻고 나면 얼굴이 얼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안방에서는 나하고 어머니, 아버지, 누나. 그다음에 작은 형, 큰 형은 이제 이쪽 건넌방에 살고 그랬지.

11) 청량리 로터리에 위치했던 영화관 중 하나.

12)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의 대표적인 영화관이었다. 개봉관에서 상영한 영화 필름을 받아서 상영하는 재개봉관이었지만, 후에 개봉관으로 부상하였다. (출처: 동대문구 기억여행)

● 그 집에서는 언제까지 사신 건가요?

8살까지요. 그다음에 지금 내 주소지가 69-53번지로 돼 있을텐데, 그 주소지로 집을 짓고 내려오셨어요. 그거는 ‘ㄱ’ 자 집이야. 그전은 초가집이었고 내려와서는 기와집. 옛날 조선 기와가 아니고 양기와라고 그래서 시멘트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기와집. 거기는 먼저 살던 집보다는 컸죠. 방도 꽤 여럿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내가 태어난 집에는 우물이 없어서 물 길러 남의 집도 다니고 그랬어요. 옛날에 동네 우물 하나, 둘 있는 거 퍼다 먹었잖아요.

아버지가 사실 유복자(遺腹子)나 마찬가지로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키우던 말을 다 끌고 나가셔서 객사하셨나 봐. 우리 아버지 3살 때 집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에는 막내 작은할아버지 밑에서 사셨대요. 이사를 한 계기도 작은할아버지가 살던 집터가 한국전쟁 때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라던 곳이거든요? 거기로부터 다시 집을 짓고 내려가자 해서 다시 집 짓고 내려오게 됐죠.

● 이사를 간 집의 위치가 어디였나요?

먼저 살던 집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졌어요. 내리막길이에요. 내가 태어난 곳은 언덕바지 위에 있었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큰 길가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장위2동주민센터 바로 옆이었어요.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다 헐렸지만. 거기가 장위10구역 쪽이에요.

장위동이 1949년 서울시로 편입이 됐는데, 말로만 서울이지 지방

가서 사는 사람보다 더 못 살아. 내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전기 있는 집이 이쪽에 한 집 정도나 있을까? 다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썼어요. 내가 태어난 곳엔 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 내려와서는 전기가 없는 거야, 집은 큰데. 동사무소 바로 옆인데도.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종암동까지 걸어가는 거야. 정종병에 끈을 달아서 거기에 담아오다가 깨져서 다 쏟기도 하고 그랬지.



1954년 강위동 일대 항공 사진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동네에서의 어린 시절

● 어릴 때는 어떤 놀이를 하셨어요?

동네 꼬맹이들 노는 건 똑같아요, 어딜 가나. 자치기를 한다든지 공놀이는 많이 못 했던 것 같고. 가을철 되면 메뚜기 잡으러 많이 다녀왔고, 밤 따러 다니고. 그리고 칩도 캐러 다녀왔고. 칩은 엄정계산 쪽으로 가야 해요, 여기는 없어. 산 쪽 가면 칩뿌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옛날엔 염광여상¹³⁾인데 지금 염광여상이라고 안 그럴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초안산 쪽에 가야 칩넝쿨이 있었지. 메뚜기 잡다가, 낮에 발등을 베어서 한때 고생도 신나게 한 적도 있고. 그때 목화솜이 퍼서 벌어질 때예요. 목화가 하얗게 벌어져. 그때 지혈하려고 다치고 나서 목화밭까지 가서 그걸 따가지고 씨 있는 거 그대로 다리에다 묶고 지혈하고 온 적도 있어요. 집에 와서는 혼 날까 봐 말도 못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발이 많았잖아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뭐 들판이 되는 데가, 발 한 번 걸어내면 들판이 되는 거고. 논도 베고 나면 거기가 들판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놀기가 좋은 데가 뭐냐면은 벼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할 때 마당을 진흙으로 골라놔요. 정구장 바닥을 흙으로 다저놓잖아. 그런 식으로 진흙 같은 거를 다저놓고 그 위에서 타작하면 흙이 안 섞이잖아요. 흙이 나오면은 또 다 빼고 해야 하니까. 진흙으로 시멘트 퍼 바르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해놔요. 그럼 타작하고 나면 거기서 노는

13)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9에 위치. 1967년 10월 5일에 개교하였다.

거지 뭐. 구슬치기도 재밌게 하고 그랬어요. 잘 굴러가니까.

● 주변 하천에도 많이 놀러 가셨나요?

많이 갔죠. 여름에는 하천에 가서 놀아야 하니까. 지금은 중랑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때 한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이천은 우리 어렸을 때 소귀내라고 그랬어요. 소근내라고도 하고요. 소귀내라는 옛날 명칭을 보면은 수유리에서 쌍문동을 넘어가잖아요. 다리가 있죠. 예전에는 우마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 그런 다리였었는데 소에 소금을 옆에다 싣고, 등에다가 이렇게 메어주고 갔는데 소가 가다가 거기에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소금 다 녹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를 해요.

● 겨울에는 썰매도 타셨나요?

그럼요. 예전에 장석시장¹⁴⁾이 있던 자리 근처에 한국전쟁 때 포탄이 떨어져서 웅덩이가 생긴 데가 있었어요. 그걸 ‘군논’이라고 했어. 논 가운데 포탄이 떨어져서 샘이 나니까 개울을 만들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내려 가야 하니까. 거기서 썰매를 타고 놀았어. 겨울이면 그제 어니까. 한 날은 동네 꼬맹이가 썰매 타고 가다가 얼음이 녹은 곳에서 풍덩 빠진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 동네 사람들 썰매 잘 탔죠. 쌍발이 아니고 외발썰매도 만들어서 그것도 서로 자랑을 하는 거야. 외발로 얼마나 좁게 만들어서 타느냐 하고. 하여튼 그때 보면 참 신통들 해. 구정 전이면 설빔을 해주잖아

14) 장위3동 삼익아파트(화랑로37길 42) 부근에 위치했던 시장. 1968년에 설립허가가 난 후 운영되었지만, 장위4구역에 포함되어 철거되었다.

요. 옷도 그렇고 양말도 새로 사주고 그래. 명절 전에 그걸 입고 나가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그러면 짚단이 많잖아. 추우니까 거기서 불 피워서 논다고. 그러다가 친구가 “야, 너 다 뒤에 다 탔어.”라고 해서 보니까 옷이, 등 쪽이 홀라당 타버린 거야. 그래서 혼나본 적도 있고 그래요.

●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셨던 기억도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여기서 경복궁, 창경궁 이런 곳 나가려면, 문(門) 안¹⁵⁾ 들어가려면 어려운 시절이니까 걸어서 다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못 갔죠. 우리 어려서는 문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동네에서 누나랑 형님들하고 가을이면 새 보러 다니고, 농사지을 때 깡통을 가지고 막 두드리고 새 쫓느냐고. 어렸을 때 그런 건 있지.

새총 만들어서 새도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겨울에는 참새 잡으러 많이 다녀왔어요. 참새 잡는 것도 조심해야 해. 기와집에 있는 참새는 못 잡았고 한옥집, 그러니까 초가집은 지붕 밑에 깊이가 깊지 않아서 참새가 그 안에 있어도 잡기가 쉬웠거든요. 그러면 손을 딱 집어넣어서 잡았지. 참새고기를 먹어본 사람들만 알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지 어떤 맛인지. 엄청 맛있었어요. 그때는 고기도 못 먹을 때니까 엄청 맛있지.

15) 사대문 안.

하루 세끼만 잘 먹어도 감사했죠

● 어린 시절 먹을거리는 주로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때는 하루 세끼만 잘 먹어도 감사했죠. 우리 때는 한겨울에 밥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잘 먹는 거야. 그땐 그랬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연탄도 없을 때니까 나무를 해와야 밥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때 나무를 하러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장위동에서 화계사까지 갔었어. 이쪽에 나무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산림간수(山林看守)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수한테 잡히면 신나게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느라고 화계사까지 갔지. 그쪽에 가면 산림간수가 없어요. 거기서 망태를 쥐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무하고 “그렇게 해서 너 밥 얻어먹겠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

또 소나무 껍질을 까고 속껍질을 한 번 더 까면 하얗게 나와요. 그거를 씹으면 송진내가 나면서 좀 맛이 달짝지근했어. 그걸 한참 씹으면 껌같이 돼, 그게. 그 맛에 뜯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찹쌀떡 있죠. 찹쌀떡. 그것도 맛있었어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가설극장에서 영화 구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개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그걸 팔아서 보고 그랬어요. 개구리는 철사로 삼지창 모양을 만들어서 개구리가 딱 뛰면 그걸로 쳐요. 그럼 뒷다리는 빼서 우리가 구워 먹고 몸통은 깡통에다 모아서 팔아. 당시에 여기에 양계장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팔아요. 또 미꾸라지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곰보추탕’, ‘형제추탕’이라는 식당에 납품하던 노인들이 계셨는데 거기다가

파는 거야. 그래서 영화 구경도 가고 그랬어요.

● 그 외에도 어린 시절, 동네에서 겪었던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재강이라고 아세요?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술지게미라고도 했는데 그걸 소 먹이려고 막걸리 공장에서 실어 와요. 마차에다가 실어오고 그러면은 물이 똑똑 떨어지잖아. 그게 막걸리를 덜 짜서 그러는 거거든. 그걸 삼발이 놓고 그거 올려놓으면 막걸리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 그거 얻어먹으러 왔어. 당원(糖源)¹⁶⁾ 하나씩 가져와요. 그걸 빵아서 막걸리에 타서 먹으면 달짝지근하잖아.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거 잡숫고 취하셔서 노래하는 거 보면 참 재밌었지, 옆에서 보면.

16) 포도당에 사카린을 첨가해 만든 인공 감미료. (출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J2

꿈이 있던 학창시절



장위초등학교 15회 졸업생

● 국민학교는 어디로 다니셨나요?

장위초등학교요. 제가 15회 졸업생입니다. 그때 옷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옷마을, 가운데마을, 아랫마을, 활랑리 이렇게 4개 부락이 장위동인데. 옷마을에 부화장이 있었어요, 달걀 부화시키는 곳. 장위초등학교가 3회까진가 거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 자리로 옮겼다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콘크리트 집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미군 막사 같은 게 있어요. 함석으로 된 둥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3학년 땐가 학생이 자꾸 늘어나니까 또 건물을 짓고. 옛날에는 운동장도 상당히 넓었는데 지금은 좁더라고요. 내가 육상을 어려서 많이 해서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뛰면은 100m 뛰고도 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될 거 같아. 교실 만드느라고 그랬겠지, 뭐. 지금 교실이 많이 늘었잖아요. 건물 높이도 올라갔고. 근데 지금은 학생들도 그렇게 없다며, 옛날 같지가 않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우물도 있었고 뒤쪽에 동물들도 키울 수 있는 자리도 있었단 말이야. 소나무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려서는 송충이를 잡아요. 집게랑 깡통 들고, 집게 없으면 나무젓가락 가지고 가서 송충이를 잡아다가 몇 마리를 갖다 줘야 해. 그래야 선생님이 점수를 줘. 혼이 덜 난다 이거야.

우리 한참 위에 선배님들은 연춘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장위동에서도 연춘을 갔어. 또 돌곶이 사람들은 청량초등학교¹⁷⁾ 다니고. 장위동에 학교가 없을 때는 그렇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장위초등학교가 생기고 나서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죠. 그 전에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 육상은 얼마나 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했어요. 내가 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가서 나보다 잘 뛰는 놈이 없었어. 내가 9살에 학교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같은 학년에서도 그렇고, 위 학년에도 나보다 잘 뛰는 애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지 육상을 많이 했죠. 서울운동장¹⁸⁾에 가서 시합도 해보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60m를 뛰더라고, 100m가 아니

17)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25길 31에 위치. 1937년 4월 5일에 '경성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18) 동대문운동장(東大門運動場)의 다른 이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에 위치했다가 2007년부터 철거를 시작하여 폐장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고. 내 기억에는 그래요. 그리고 4학년이 되니까 100m를 뛰든가? 그 다음에 5학년 때부터는 100, 200, 400m가 있고. 그걸 다 했어. 높이 뛰기고 멀리뛰기고 다 했어, 혼자서. 3,000m 마라톤도 해본 적 있어요. 2학년까지는 삼선초등학교¹⁹⁾ 가서 했고. 3학년서부터는 우이초등학교²⁰⁾ 가서 했어요. 우이초등학교 운동장이 넓어서 거기서 했어요. 옛날엔, 까불고 놀고 하는 거는 참 좋아했으니까, 뭐.

● 학교에서 배급받았던 먹거리가 있었나요?

카스텔라 모양으로 생긴 옥수수빵이 있고, 옥수수빵은 나중에 애기고요. 그전에는 강냉이죽 줬어요. 학교에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솔단지 큰 거 걸어놓고 당번이 양철로 만든 양동이랑 국자를 가지고 그걸 타러 가는 거야. 우리 동네에 가게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가게를 하는 집 애들이 한 명은 1반, 한 명은 2반이야. 요놈들이 당원을 가져와, 당원. 지금 말로는 뉴슈가. 뉴슈가는 가루잖아요. 예전에는 덩어리로 되어있었거든요. 그걸 부셔서 강냉이죽에 넣어서 먹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걸 얻어먹으려고 다들 애썼지. 조금만 넣어도 달짝지근하니까.

우리 위의 사람들은 우유 가루를 받았어요. 우리 누나랑 형도 그걸 받았다고 그래요. 미군 쪽에서 들어왔어요. 그걸 집에 가져와서 물 넣고 찌면 돌덩이같이 돼요. 엄청 딱딱해요. 그걸 깨서 조그만 걸 하나 입에 넣으면은 몇 시간씩 가, 그제. 아마 눈깔사탕보다 더 안 녹는 것 같아. 그런 것도 먹어본 적이 있죠.

19)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29길 106에 위치. 1949년 9월 1일에 개교하였다.

2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90길 36에 위치. 1949년 10월 2일에 개교하였다.

토박이는 토박이들끼리

- 장위동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부촌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이주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토박이는 토박이들끼리 놀았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국민주택이나 공병주택, 부흥주택 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 거의. 좀 텃세가 있기도 했지요.

학교에 가도 벌써 주택 애들하고 토박이들을 보면 옷차림이 다르잖아. 쉽게 말하면 코 질질 흘리고 다니는 놈들이 토박이들이고, 주택 애들은 좀 깔끔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도 문 안에서 들어왔고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 텃세 관계 때문에 좀 불편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들은 여유가 있어 돈이. 우리는 없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 갈 때 그냥 밥만 싸서 가, 고추장하고. 가다가 고추발 있으면 고추 따고 마늘종 나오면 마늘종 따고. 그걸 반찬으로 먹고 그랬으니까.

- 토박이들끼리는 이웃들의 관계도 좀 더 좋았겠네요.

좋죠. 옛날에는 누가 떡을 해도 나눠 먹는 거고, 동네 사람들이 김장해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 집에서 하면 그다음 날은 이 집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도와

주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

가수가 꿈이었어요

● 중학교도 장위동에서 다니셨나요?

중학교는 다른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공고로 진학을 했어요. 그때는 집이 다 어려우니까. 뭐 인문계니 뭐니 따질 게 아니고, 기술 배워서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대개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때 주변에서 공고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쉬운 게 아니야. 상고하고 공고는 우리 어렸을 땐 힘들었어. 오히려 인문계 학교 가기가 쉬웠지. 공고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힘들었어요.

● 통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걸어 다녔죠. 거리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걸어 다녀야 했어. 버스비 때문에도 그렇고.... 나는 그래도 여기서 산만 넘어가면 됐는데, 서라벌중학교²¹⁾로 간 애들이 있어. 돈암동에 있던 서라벌중학교. 거기 다니는 친구들도 여기서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 후에 동방고개²²⁾ 길 뚫리고서는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21) 서라벌중학교 돈암동 7번지에 위치했던 학교. 1956년 3월 5일에 개교하였으며, 1998년 강북구 우이동으로 이전하였다.

22) 장위1동에 위치한 고개.

● 사춘기 시절은 어떠셨나요?

방황도 좀 했죠.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도 농사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부터 노래를 한답시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가수가 꿈이었던 거지. 그래서 집에 가서 악기 좀 만지면은 아버지가 땀따라니 뭐니 하면서 악기도 부숴 놓고 그러셨어요. 그때가 1967년, 68년인가? 60년대 후반쯤이었어요. 기타 배우려고 갖다 놓으면 다 부시고 드럼(drum)채를 갖다 놓으면 죄다 꺾어버리고. “이거 가지고 땀나무에 조금 보태자.” 이런 식이야. 우리 아버지가 좀 우직하시지 뭐.

● 아버지께서 가수의 꿈을 반대하셨군요.

그러셨죠. 그래도 한참 노래도 많이 듣고 했지. 그 당시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최희준²³⁾이라는 분이 제일 인기가 좋았죠. 그분 노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영광²⁴⁾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수 남진²⁵⁾의 노래 많이 만들었거든요? 〈울려고 내가 왔다〉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다 한 건데, 지금의 을지로3가역 부근에 명보극장²⁶⁾이라고 있었어요. 극장 건너편 골목 들어가면은 두 번째 건물에 5층, 거기에 김영광 작곡가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테스트도

23) 최희준(1936~2018)은 1960년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라는 곡으로 데뷔한 가수이다. 1990년대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4) 김영광(1942~)은 1961년 <꿈속에 미소년>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연주자이자 작곡가이다. 유명 가수들의 곡을 다수 작곡하였다.

25) 남진(1945~)은 1965년 <서울 플레이보이>라는 곡으로 데뷔한 가수이다.

26)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47에 위치했던 극장. 1957년 8월 26일에 개관하여 2008년에 폐관되었다. 현재는 명보아트홀이 들어서 있다. (출처: 두산백과)

받으러 가고 했어요. 친구 놔하고 같이 갔는데 친구는 학원을 보내고 나한테는 “내일부터 너 나와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집에 가서 애 기했더니 판따라니 뭐니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일간 집에 안 들어가고 술만 먹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막걸리 먹고. 나중에 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다니고 그랬죠. 그 뒤에도 포기하진 않고 음악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돈이 별로 없 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리고 나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죠.

출입할 수 있는 산은 다 가봤지

● 그 이후로는 등산을 자주 다니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산을, 출입할 수 있는 데는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산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내가 1969년도에 등산을 시작했어요. 북한산을 처음에 갔고 설악산에 가서도 45일씩 혼자 있어 보고. 그리고 이제 1971년도에는 구미에 가서 열흘을 일하고 왔 어. 구미공단 생길 때, 친구 형이 벽돌 쌓는 일 있잖아요. 조적(組積) 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걸 했는데, 우리는 공장 담 같은 거 벽돌로 쌓아서 만들 때 현장에서 뒷일 해주는 거. 하루 오백 원 받기로 하고 간 거야 이제. 하루에 오백 원인데 차비는 다 대주고, 먹는 거 다 해 주고. 그래서 5명이 거기 가서 일했어. 열흘만 딱 하고 오천 원 받고 오기로. 친구들 한 10명이 설악산을 들어가는데, 경비가 없으니까 경비 만드느라고 간 거지. 그렇게 돈 벌고 밭에 있는 열무 뽑아다 김

치 담그고, 쌀도 반 말씩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배낭에다 메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신발들도 없고 하니까 워커 신고 온 사람이 제일 좋았지. 저도 워커를 신고 갔었는데,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옷이고 신발이고 다 젖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짚신을 두 켤레 엮여 주셨는데, 그거 꺼내 신고 올라갔죠. 대청봉(大靑峰)²⁷⁾ 올라갈 때 내가 짚신 신고 올라간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발가락이 나와 있어. 엄지발가락이 구멍이 나서.

●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네요.

맞아요. 잠도 텐트에서 잤어요. 그 당시 때는 다른 게 없으니까 군용 텐트. 군용 A형 텐트. 두 명이 자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근데 네 명씩 잤지 한 텐트에. 거기서 꼭 껴안고 자. 수통을 베개 삼아서. 그리고 그다음 날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내려오는 중에 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고 수영복 하나만 걸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산 밑에 내려오니깐 다들 쳐다보고 그랬죠. 수영복 입고 내려온 사람이 우리뿐이니까.

그때 친구들과하고 그렇게 재밌게 다녔어요. 지금 보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열흘간 일해서 그 돈 가지고 놀러 갔다는 거. 이제는 집사람이 못하게 하더라고. 나이 먹고 뭘 하느냐고. 그 바람에 등산 장비를 판 지가 한 2년 됐나 봐요. 아직 좀 남긴 남았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했어요.

27)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있는 설악산의 최고봉. (출처: 두산백과)

● 그럼,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일단 졸업 후에는 좀 놀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방향? 노래한답시고 많이 다니는 바람에 동네에서 많이 불러 다녔어요. 노래는 10대 때 한 거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까지. 그러다가 공장 생활을 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 전공이 기계 쪽이었으니까. 거기서 일하다가 기름때 묻히고 싶지 않아서 종합상가, 동대문 종합상가 2층에 있는 가게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좀 편했죠.



내설악 장수대(1971.08.03.)



설악산 신흥사(1971.08.06.)



설악산 흔들바위(1971.08.06.)



친구들과 파주 임진각 부근에서

13

청년에서 아버지로



가족들과 함께

날 알고 싶으면, 산에 갈 때 쫓아오시오

●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중매 반, 연애 반이라고 그래야 하나? 누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소개로 만났죠.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우리 큰어머니가 막내 빨리 장가보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늦은 나이에 갔죠. 서른 넘어서 갔으니까. 어찌다 보니까 소개를 받았는데 처음 만났던 날이, 나보다 한 살 밑에 내 외사촌 동생의 결혼식 날에 만났어. 그래서 결혼식엔 못 가고. 그게 198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한 다방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가 나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랬지. “날 알고 싶으면은 내가 산에 갈 때 쫓아오시오.” 그랬어. 그럼 날 알 수 있다고. 그

때 산악회에서 내가 인솔한답시고 200명, 300명을 데리고 다닐 때 거든. 그러니까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제를 시작한 거지.

● 사모님의 고향은 어디세요?

태어난 곳이 울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돌 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 같아. 우리 장인어른이 먼저 와 계시고. 황해도 사람인데 울산에서 결혼하시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자리가 잡히니까 가족들 불러서 같이 생활했던 거 같아. 이태원에 자리를 잡고 사셨어요. 나이는 나랑 5살 차이가 나요. 1957년생.

●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1983년에 했어요. 종암동에 있었던 주신예식장에서 했죠. 그 당시에 예식비를 좀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갔죠. 20%인가 할인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1959년, 그 어렸을 때 이사한 ‘ㄱ’자 한옥에서 계속 살다가 결혼하고 나오게 됐지.

●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설악산으로 갔어요. 원래 울릉도를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 친구들이 말리더라고. 몸이 약해서, 배멀미를 하거나 그러면 힘들다고 해서 예식 끝나고 친구들과하고 같이 남한산성에 갔어요. 남한산성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친구들 보내고 우리 외갓집 동네, 청담동 근처에 호텔

이 있었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차표 끊어서 설악산 갔죠. 그리고 다녀와서 동네 사람들이랑 피로연도 하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참 대단해

● 결혼 후에도 계속 장위동에 사셨나요?

네, 계속 장위동에서 살았죠. 내가 돈 한 푼 없이 했어요, 결혼을. 결혼 전에는 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내가 결혼 날짜 잡고 나니까 형이 그 집에 들어온 거야. 큰형이 나가 있다가 막내한테 집 뺏긴다고. 어느 날 보니까 이삿짐이 다 들어와 있네. 조카까지 다 데려오고. 그래서 대판 싸웠죠. 결혼식 전날까지 싸웠어.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장위동 국민은행 뒤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한 보름 살았나? 금방 이사 나오고 단칸방 얻어서 또 계속 고생했지, 신혼이고 뭐고.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도 미안한 게 결혼하고 처음 2년 동안 한 13번은 이사를 했을 거야, 장위동에서만. 무일푼이라 집을 많이 전전했어요. 이사 엄청 다녔어요. 자리 잡기 전까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보따리 많이 싣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이 둘 낳고 살았죠. 장위동에서 계속 살다가 밖으로 나간 건 지금 사는 우이동으로 간 게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한 1년 지났을 때였나, 우리 매형이 돌아가셨다고 연락

이 왔는데 그때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결혼반지를 팔라고 줬어요. 그것도 세공하는 친구가 보석값만 받고 만들어준 거였거든. 그래서 그걸로 매형 장례도 치렀죠. 이런저런 일들 생각해보면 집사람이 참 대단해, 내 옆에서 묵묵하게 있어 준 게.

아들 하나 딸 하나

● 자녀분들 이야기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둘 있어요. 아들이 1984년생, 딸은 86년생. 쥐띠, 호랑이띠. 이 동네에서 컸으니까 초등학교는 다 내 후배지. 중학교는 아들은 남대문중학교²⁸⁾, 딸내미는 월곡중학교²⁹⁾ 나왔고.

● 자녀분들을 양육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내미는 참 애가 똑똑했어. 유치원 때도, 초등학생 때도 인기도 좋고 똑똑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장사를 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죠.

또 둘째는 참 희한해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꾸로 있었어요.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이 돼서 엄마가 많이 고생했죠. 양수가 터져서 날짜가 예정일보다 좀 일찍 나왔는데, 거꾸로 있던 아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 신발을 제대로 놔줘도 반대로 신어요. 숫자

28)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60·30에 위치. 1934년 5월 20일에 ‘조선무선강습소’로 설립되었다.

29) 서울시 성북구 장월로 6에 위치. 1986년 3월 4일에 개교하였다.

를 셀 때도 우리는 엄지손가락부터 접으면서 세잖아요. 근데 애는 거꾸로 새끼손가락부터 펴면서 숫자를 세요. 그리고 모든 게 늦어. 근데 집념은 있는 거야.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러는 거 보면. 딸은 지금 나하고 같이 살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제가 처음엔 직장생활을 했는데, 집사람이 애들 교육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그 욕심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유치원을 보내는데. 여기에 새서울유치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장위2동 새마을금고³⁰⁾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큰 유치원이에요. 성북구에서는 알아주는 유치원이었어요. 그 들어가기도 힘들고 학비도 상당히 비싸고. 그때 고등학교 학비 이상 들어갔으니까 봉급 얼마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음식도 못했으니까 집사람이 많이 했지.

활랑리 식당을 열다

● 식당 개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1970년대에는 공장에서도 잠깐 일했고 종합상가에서도 일했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산 많이 다녔을 때는 경비 마련하려고 구미공단 가서도 일했고, 구로공단 생기고 나서는 거기 가서도 일을 해봤죠.

30)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07에 위치.

그 이후에는 서울신문사³¹⁾에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판매국에서. 한 10년 정도? 1982년에 입사해서 10년 근무를 했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집사람이 그거 가지고 애들 못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장사합시다.” 해서 식당을 시작한 거지. 내가 1991년에 거기 그만두고 바로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1992년도일 거예요.

● 가게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활량리’식당. 이제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가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여기가 활량리인데, 활량리라고 붙여. 그런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야.”라고 얘기가 나와서 가게 이름이 ‘활량리’가 된 거예요.



3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국문판 기관지 『매일신보』를 계승한 『서울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로 1945년 11월 22일에 설립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개업 당시 주력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민물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옛날에 개천 가서 삼태기로 고기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아서 끓여서 먹고 그랬는데, 민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뭘 했냐면 추어탕 집을 했어. 추어탕이 여기 서울식으로 끓이는 게 참 맛있어요. 어렸을 때도 미꾸라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추어탕 끓여 먹고 했었거든요? 호남이나 경상도 가면 무청 시래기 넣고 된장 풀고 하죠? 미꾸라지를 갈고. 경상도 가면 배추 우거지 넣고 된장 풀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고 육개장 같아. 고사리도 넣고 토란대도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을 풀어요. 소 내장 같은 것도 풀어. 그 당시에는 내장이 없으니까 소 기름, 그것도 정육점에서 팔았어요. 소를 잡으면 기름 덩어리가 나오잖아. 그걸 걸어놓고 썰어서 팔아요. 옛날엔 그랬어, 10원어치도 팔고 30원어치도 팔고 그랬어.

이 동네 사람들이 도살장 가서 많이 일했거든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 기름 덩어리가 다 걸려 있었어.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 가서 얻어먹고 했는데, 된장찌개에도 기름이 들어가면 부드럽잖아요. 그걸로도 추탕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랑 많이 먹었지. 지금도 제가 활랑리 향우회 총무를 보는데,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죠. 향우회 모임 날은 그것만 끓여. 다른 거 하면 회원이 안 나와.

● 그래서 추어탕 집을 시작하셨군요.

네, 근데 동네 사람만 가지고는 장사가 잘 안되더라고, 보니까. 미꾸라지를 통으로 끓이니까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고 안 먹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매운탕을 같이 했어요, 종류가 비슷하니까. 그때 내가 지금 자리 말고 다른 데서, 지금 장위4구역에 포함되는 한옥에서 장사할 때인데 앞집이 횃집이었어. 일식집. 그럼 아침 10시쯤 되면 밥 먹고 손님 주차 자리 때문에 바깥에 돌이 나와 있어야 해.

그때 좋았던 게 안기부³²⁾가 이쪽 석관동에 있었거든. 그래서 점심 시간에 직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상당히 빨라. 한 10시 30분부터 나와. 그때부터 오후 1시 넘어서까지 순차별로 나와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청량리부터 이쪽 바닥은 거기 사람들이 진을 쳐, 식당마다. 그니까 앞집에 있던 식당 사장이나 나나 앞에 나가서 서로 손님 주차하게 하려고 다뤘죠. 그때는 좋았죠. 재밌었어. 매운탕 끓이면서 재미 좀 봤죠. 메기도 지금은 비싸지만, 그때는 1kg에 몇천 원밖에 안 했으니까. 점심에 장사 잘 될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먹어주는 거만 해도 100만 원 넘었으니. 점심 한 끼만 해도. 한 달에 삼천 만 원을 판다고 가정하면, 인건비도 싸잖아요. 집세도 싸고, 현찰도 들어오고. 그니까 1년에 몇억 버는 건 우습죠. 난 식당을 지금까지도 재미 삼아 하는 건데, 음식 장사가 웬만큼만 잘 되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나아요.

32) 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의 후신이자 국가정보원의 전신. 1995년 내곡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고기를 배웠어요

● 그러면 언제 고깃집으로 업종을 변경하셨어요?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때 안기부 직원이 그쪽으로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동네를 떠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또 많이 까먹더라고. 장사가 잘 안됐어요. 그때 모 백화점에 실장으로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동생도 잘 알았거든요? 하루는 그 후배가 와서 “형, 어렵지?”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깃집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근데 난 고기도 잘 몰랐으니까 “내가 뭐, 고기를 알아야지.” 그랬더니 도와준다고 해서 바꾸게 됐지. 고기 납품하는 업자를 보내오더라고. 그래서 가게도 어떻게 할지 얘기해 주고, 고기는 본인들이 처음에는 대주는데 내가 볼 줄 모르니까 작업할 때마다 가서 보고 배웠죠. 그래서 지금은 달인 됐지, 뭐. 그때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고기가 지금은 뭐 등급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황소가 제일 맛있어! 황소 2등급 놓고, 암소 1등급 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나는 2등급 황소 먹지.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황소가. 그래서 누가 황소 잡아 왔다고 그러면 가서 받아오고 해요.

장위동 66의 7번지, 그 한옥에서만 20년 넘게 장사하다가 그만뒀지. 그만두고 쉬다가 한 6개월 노니까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집사람도 같이 또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돈 벌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하려고 지금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여기에 2006년에 왔나?

그쯤 왔을 거예요.

●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식당을 개업하실 건가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다고 그러면은 식당은 안 하죠. 이거 골병드는 작업인데요, 뭐. 힘들죠. 위장도 나빠지고, 숯불 피우는 게 하루 종일 있으면 안 좋잖아요. 폐 쪽에 나쁘고.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성격이 장사 스타일은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식당 운영하는 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할 줄도 모르고. 말도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쉬는 것보단 나와서 움직이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벌써 못했을 것 같아요.

14

나의 고향 장위동 이야기



1966년 장위동 일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마을의 옛 지명들

● 이제 마을 관련 이야기를 여쭙볼게요. ‘활랑’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아시나요?

이 동네에 하천이 있죠. 지금 우이천이라고 그러는 소귀내, 그다음에 지금 중랑천이라고 하는 한내. 그쪽이 예전에는 모래사장이 좋았어요. 내가 20대에서부터 산도 많이 다니고 어디 다니면서도 그런 모래사장 있는 데는 못 봤어. 그렇게 모래사장이 좋았던 곳. 나무도 좋았고…. 여기가 그런 곳이었는데, 옛날에 과거 시험에 떨어진 양반들이 여기 많이 놀러 왔었나 봐. 와서 놀다가 밤이 늦어지니까 놀다가 못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쪽에서 많이 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또 술을 찾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주막집들

이 생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놀고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한량(閑良)³³⁾이 많이 찾아왔던 동네라 그런 지명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양반들이 그때서부터 ‘활랑리’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중랑천에 옛날에는 돌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는 것 같아. 퇴계원이나 광릉, 이쪽 사람들이 문 안을 가려면 이 길로 다니는 거예요. 활랑리 앞에 한길, 한길이라고 도로가 컸거든요. 트럭도 다니고 할 정도의 도로였으니까. 거기가 지금 장위시장 앞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신설동에 있던 노벨극장³⁴⁾ 건너편이 우시장이었어요. 사거리



판자촌 뒤로 보이는 노벨극장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에서 청계천 쪽으로 가면은 우측으로 실내 아이스링크장도 있었고 거기 경마장도 있었는데, 경마장은 뚝섬으로 옮겼다가 과천으로 갔지. 아무튼, 이제 장날이면 남정네들이 소를 끌고 팔러 가잖아요. 아니면 마차에다가 뭘 싣고 팔러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술장사를 하려고 이 동네에 선술집들이 많았대요. 예전에 그렇게 주막, 술집들이 많았나 봐.

33) 일정한 직사(職事)가 없이 놀고먹던 말단 양반 계층.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34) 신설동에 위치했던 동시 상영관.

● 활랑리 외에도 과거 장위동 내에 있었던 마을의 명칭을 알려주세요.

우선 활랑리는 장위2동 주민센터를 주축으로 보시면 돼요. 활랑리에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활랑리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지금 장위1동 주민센터 있는 그쪽 동네가 명덕골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어요. 현재의 장곡초등학교³⁵⁾ 있는 쪽. 그쪽은 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장위3동 있죠? 우이천 따라서 길게 있는데, 그쪽은 위에서부터 옷마을, 가운데마을, 아랫마을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위에 있던 옷마을 근처에는 ‘궁안’이라고 해서 덕온공주³⁶⁾의 양자, 윤용구³⁷⁾ 대감이 살던 집 근처를 그렇게 불렀고, 옷마을 위쪽으로는 ‘동아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운데마을, 아랫마을이 있었고 아랫마을 쪽에는 군논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릴 때 썰매 타고 놀았던 군논. 그러니까 장위동이 옷마을, 가운데마을, 아랫마을, 명덕골 그리고 활랑리 이런 마을들이 합쳐진 거죠.

옛날에 동네를 통으로 구분할 때 보면 1, 2통은 돌곶이, 그다음에 3통은 장위동의 아랫마을, 4통은 가운데마을, 5통이 옷마을, 궁안. 그다음에 6통의 위치는 모르겠고 7통은 활랑리입니다. 활랑리는 도로를 끼고 동네가 길었죠. 그리고 양옆으로는 산 아니면 집이었죠. 옛날엔 집들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 강원도 산골에 가면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35) 서울시 성북구 장월로23길 16에 위치. 1978년 3월 21일에 개교하였다.

36)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는 조선 23대 왕 순조와 순원왕후의 셋째 딸이다.

37) 윤용구(尹用求, 1853~1939)는 조선시대 문신이자 서화가로 덕온공주와 그의 남편 윤의선의 양자이다.

활랑리에서 넘어가면 지금은 상월곡, 하월곡 나뉘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집도 많이 없었을 때고 그냥 합해서 ‘월곡리’ 이렇게 불렸죠. 지금 월곡2동 주민센터 있는 그쪽을 예전에는 ‘막은더미’라고 그랬어요. 상월곡에서 하월곡으로 넘어가는 길에 막힌 골목, ‘막은더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밤에는 그쪽으로 거의 못 다녔다는 거예요. 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버지도 그 전에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그 옆에는 ‘서낭당길’이라고 있었어요. 거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었고, 걸어 다닐 땐 그쪽이 지름길이라 그렇게 넘어 다녔어요.

장위1동에는 동방고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니까 그런 명칭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더 예전에는 그쪽 오솔길을 ‘미고개’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우고개’. 그 너머에 도살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동방주택이 들어서면서 동방고개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그때 양쪽 산을 허물고 건물들을 많이 짓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의 북서울꿈의숲 정문 앞에서 넘어가는 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미고개하고 같이 넘어가서 만나는데, 그 고개도 서낭당길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번동 있죠? 예전에는 번리라고 했는데 가운데 번리하고 아랫 번리 사람들은 거기로 다녔어요. 명덕골에 살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다녔고요.



강위동의 다섯 마을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아주 시골이었죠

● 당시 동네 풍경은 어땠나요?

뭐, 아주 시골이었죠. 논 있고, 밭 있고, 옆에 야산 있고, 나무들 좀 있고. 국민학교 때만 해도 주택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학교 끝나면 논밭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지.

● 당시 장위동에서는 주로 어떤 농작물을 심었나요?

지금 하월곡동이죠? 동덕여대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은 전부 파밭이 주로 많았어요. 그리고 배추밭. 무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막은더미 밑까지도 밭이 있고 논도 있었는데 거기가 마사토(磨沙土)³⁸⁾가 좀 많아서 조나 다른 곡물을 많이 심더라고요. 지금은 조 심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려서는 조 농사가 잘 된다고 그걸 심은 거 같아, 곡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고구마도 심어보고. 그리고 당시 양주군 노해면에 속했던 지역 쪽, 지금의 월계동 가까운 쪽으로 가면은 거의 논이었죠, 뭐. 고양군, 우리 동네 쪽 송인면을 보면 논도 더러 있지만, 밭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근데 과일 재배하는 집은 없었어. 밭도 고추밭, 깨밭 이런 것만 있었지 오이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배추, 무, 파, 감자, 고구마, 이런 거지.

이쪽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여기 사람들은 좀 꾀가 많은 건지, 가을에 벼를 베잖아요. 그러

38) 화강암이 풍화하여 잘게 부서진 산모래. (출처: 두산백과)

면 짚단을 작게 작게 엮어요, 한 손에 들기 쉽게. 다른 데는 큼직하게 엮거든, 한 번에? 근데 그걸 말려보면 조그만 게 훨씬 잘 마르지. 들고 다니기도 좋고 세워서 말리기도 좋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타작하잖아요. 타작할 때도 큼직하게 묶은 건 다 풀어야 해. 근데 장위 사람들은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털면 됐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장위 사람들이 농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편한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난가리³⁹⁾라고 그러죠? 농사짓고 벼단을 쌓은 거. 다른 데는 그 모양을 사각형으로 해요. 사각으로 짚단을 쌓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동그랴게 쌓아요. 동그랴게 싸면 그게 엄청 단단해 지거든요. 동그랴게 싸서 올리면 그 안에 쥐가 들어가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꼼꼼하게 난가리를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전엔 방앗간도 많이 없었고, 일손이 달리니까 타작도 제대로 못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잘 말려서 그렇게 난가리를 동그랴게 만들어 놓고 좀 한가할 때, 겨울에 타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땐 일손이 좀 있고 여유가 많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랬어요.

39) 농가의 마당이나 넓은 터에 쌓아두는 곡식단. 노적(露積)이라고도 한다. (출처: 민족문화대백과)

동네에 있던 공장들

- 예전에 바로 근처인 석관동에 연탄공장이 모여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위동에서도 그쪽으로 일하러 가시기도 했나요?

아, 맞아요. 석관동에 연탄공장이 많이 있었죠. 저기 돌다리 밑으로 공장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동네가 좀 많이 지저분했다고 해요. 공장이라 가까운 동네 사람들은 연탄재 때문에 옷도 못 걸어놓고, 이불빨래도 못 했다고 그래. 그걸 널어놓으면 옷이 다 시커멓게 돼서. 바람을 타고 다 날아온대요.

장위동에서 그쪽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저희 가게에 오셔서 모임을 많이 하셨던 건 기억나요. 지금은 공장도 하나만 남고 해서 이쪽으론 잘 안 오시더라고요.

- 연탄공장의 정확한 위치도 아시나요?

공장들이 지금 석관동하고 이문동. 동대문구 이문동에 많이 있었죠. 지금의 석계역이랑 신이문역 사이에 모여 있었어요. 중랑천 옆으로. 지금도 신이문역 바로 옆으로 연탄공장이 하나 남아 있어요.

서울시에서 공장 이전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도, 수입이 그것보다 더 크니까.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연탄공장뿐 아니라 운모(雲母)⁴⁰⁾ 공장도 여기 근처에 있었지.

40) 층상 규산염 광물의 하나로 화강암에 많이 포함된 조암광물. (출처: 두산백과)

● 운모공장이요?

운모라고 광물인데, 전기기구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예요. 절연시킬 때 쓰는 거라 다리미 속에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월계동에 있는 광운대학교 자리에 그 공장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갔다고 들었어. 어렸을 때 거기까지 가서 많이 놀기도 했어요.

도살장과 부화장

● 예전에 이곳에 도살장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하월곡동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동신아파트⁴¹⁾ 있는 쪽이요. 옛날 중외제약⁴²⁾ 자리인가 본데, 내 기억에는. 지금 중외제약이 다른 곳으로 갔죠? 그래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분들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들이 고기를 잘 알아요.

소, 돼지를 많이 잡았지. 그러다가 도살장이 그 이후에 마장동으로 간 거야. 마장동 축산시장 유명하잖아요. 그쪽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쪽에는 없어진 거죠.

41)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7에 위치. 1998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

42) 1945년에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 1964년 6월에 공장을 하월곡동으로 이전하였고, 1966년 5월에는 본사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다시 1970년대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부화장도 있었다고….

원래는 그게 이문골, 지금의 이문동에 있었던 건데 그쪽이 계속 개발되고 변하니까 비교적 개발이 더딘 장위동으로 왔어요. 위치는 국민주택이라고 있던 그사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갔냐 하면 옛날 장석교회 있던 자리(장위동 69-72) 너머로 갔어요. 장위2동이죠. 그리고 양계장도 있었는데,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개구리 잡아서 거기에 가져다 팔고 그랬어요.

지금 월계동에 염광중·고등학교 있죠? 염광여상도 있고. 그 학교들이 염광학원 건데. 그 시작이 장위동에서부터였어요. 그 위치가 지금 우리 가게 근처였어요. 아주 작은 한옥에서 처음엔 서당같이 운영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학생이 한 3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야학같이 운영했어요. 그때는 이름도 따로 없었어. 그러다가 인원이 점차 늘어나니까 장소를 옮기고 했는데, 말씀드린 부화장 있던 자리에도 갔었고 지금의 장곡초등학교 자리로 가기도 했어요. 그때는 염광전수 학교가 됐죠. 당시에 학교 건물 지을 때 학생들이 직접 개천에서 모래 퍼서 벽돌 찍고 했어요. 쌓는 건 기술자가 했겠지만, 학생들도 나서서 같이 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학교 자리인 월계동으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염광학원으로 인가를 내서 학교가 커진 거지. 그때 건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좋은 흙이 많이 나와서 그거 팔아서 학교 건물을 짓고도 남았다고 그랬던 것 같아.



염광학교의 시작인 한옥이 있던 자리(현 옛날순대국, 돌곶이로 93-1)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뚝섬이 터졌다고 했어요

● 어린 시절, 동네에 홍수 피해는 없었나요?

내가 태어난 집 바로 위에, 그 언덕 위에 옛날에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그때 우리는 ‘뚝섬이 터졌다’고 그랬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뚝섬 수문이 터졌다고 그러면 물이 짹 밀려와요. 그러면 면목동, 뭐 장한평 그쪽 동네는 다 물바다야.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 바다였어요. 하얗게. 위에서는 다 보였거든요? 중랑천, 면목동 일대가. 그럼 우리는 어렸으니까 위에서 물 구경하고, 우리 위에 형님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은 삼태기라고 있어요,

고기 잡는 거. 그리고 잉어 잡을 때 쓰는 투망 같은 게 있고, 통발도 있고. 대나무 우산대 가지고 만드는 큰 통발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 논두렁에 그거 설치해서 잡고 그랬죠. 그러면 드럼(drum)통 큰 거 있잖아요, 미군들이 휘발유 통으로 쓰는 그런 거. 거기에 한 통 물고기를 잡아 오고 그랬어. 옛날에 고기들 엄청 잡았어요, 여기서. 그걸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매운탕 좋아하고 추어탕 좋아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추어탕도 잘 끓이고.

● 그런 홍수가 자주 발생했나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랬고, 초등학교 전에도 그랬어요. 자주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마 때면 그랬지.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은 생긴다고 봐야지. 그때 우리가 뚝섬 수문이 터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중랑천에서 내려가면 한강으로 물이 합쳐지잖아요. 거기서 물이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뚝섬 수문이 안 터져도 밀려 들어와, 비가 많이 오니까. 옛날에는 독이 낮았잖아요. 지금이야 더 높이고 바닥도 정리해서 넓어졌는데, 옛날엔 냇가 바닥도 높았거든.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렇게 됐었지. 그리고 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태풍 사라⁴³⁾ 때문에.

43) 1959년 9월 15일 서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 남부의 사이판섬 해역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출처: 두산백과)

● 그때 이야기도 자세히 들려주세요.

여기 있는 장석교회가 우리 어렸을 때 들어왔거든요?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교회 건물 짓고 공사했던 그해에 태풍 사라가 발생했어요. 1959년이었어. 그때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면 천막으로 했던 걸 벽돌, 여기 흙이 많으니까 그걸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쌓고 양철로 위에다가 덮었어요. 함석으로 된 지붕을. 근데 그 지붕이 태풍 때문에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 교회 자리가 그때 이쪽 활랑리

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붕이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장위4구역, 그때는 아랫마을이었죠. 거기에 군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국전쟁 때 포탄 떨어져서 생긴 큰 웅덩이. 거기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좀 다치고 그랬었지.



초기 장석교회 모습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몇 개의 집성촌이 모인 곳

● 장위동에 집성촌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운뎃마을 위주예요. 그쪽에 모여 살았죠. 옷마을도 한 두세 가구는 있었는데. 지금이야 다들 여기저기 뿔뿔이 헤어져서 살고 있지만, 예전에 이쪽이 개발되기 전에만 해도 43세대 정도가 모여 살았어요, 43세대. 우리 단양 우씨가. 그러니까 장위리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세대 수였다고 할 수 있죠.

● 다른 성씨의 집성촌도 많았던 거예요?

네, 있었죠. 최씨와 한씨 집성촌도 있었죠. 그분들은 저쪽 공릉동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선조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 윤씨 집성촌도 있었어요. 조선 왕 순조의 따님이신 덕온공주의 남편 되시는 윤의선⁴⁴⁾, 그리고 양자이신 윤용구 대감이 이쪽에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족, 친척들이 이쪽에 모여서 사셨죠. 그런 집성촌이 윗마을, 가운뎃마을, 아랫마을, 명덕골 등등 여러 마을에, 지금의 장위동 일대에 있었습시다.

44) 윤의선(尹宜善, 1823~1887)은 덕온공주의 남편으로 혼인 후 남녕위(南寧尉)로 봉해졌다.

● 그럼 다른 마을, 다른 성씨의 이웃끼리 교류도 많았나요?

그런 건 뭐, 이웃이니까. 집성촌이라고 해도 섞여서 같이 사니까 잘 지냈죠. 근데 옷마을, 가운데마을, 아랫마을은 이제 우이천 옆에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반면에 활랑리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나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그쪽 마을 분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교류가 많진 않았어요. 다른 동네에 친구들이 있긴 했죠.

돌곳이도 옷돌곳이, 가운데돌곳이, 아랫돌곳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 동네라는 곳도 있었는데, 옛날에 경춘선 다녔던 그 밑에 동네예요. 거기는 몇 세대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런지 여기서는 옛날부터 제주 동네라고 했어. 거기에도 친구가 살았어요.

1년에 한 번 소를 잡았어요

● 같은 동네 이웃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이가 좋았죠. 서로 가까이 지냈으니까. 어... 세찬계(歲饌契)⁴⁵⁾라고 그러죠? 그게 마을마다 있었어. 옷마을은 옷마을끼리, 가운데마을은 가운데마을끼리, 뭐 활랑리는 활랑리 사람들끼리 같은 마을 내에서 동네 사람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야. 설 전에, 1년에 한 번 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가 끝

45) 세찬을 준비하는 데 쓸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든 계.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나면, 농사지은 쌀을 팔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돈을 냈었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소를 한 마리 사는 거야. 그래서 명절 전에 그걸 잡아서 다 나눠 먹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소고기면 최고지, 뭐. 지금은 등심이다 뭐다 해서 부위 별로 사서 먹고 하지만, 그때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똑 잘라서 저울에 달아서 동네 사람들끼리 똑같이 나눠서 가져갔죠. 그거 가지고 오면 명절에는 아주 그냥 포식하지, 뭐. 근데 그때는 왜 돼지를 안 했는지 몰라. 소만 했어, 희한하게. 돼지 잡기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 고기 손질은 동네 분들이 모여서 직접 하신 건가요?

옛날에 고개 너머에 도살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 중에 거기 가서 일했던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 작업을 했지. 그러면 소머리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소꼬리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건 공짜로 가져가는 거, 잡아주는 대가로.

그 당시에는 생일이라도 그렇게 못 먹었거든요. 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라서 그 추운 날 향아리에다가 나눠서 넣어놔지. 그럼 향아리 속에서 고기가 얼어요. 지금 아무리 춥다고 해도 그때 추위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지금은 옷들도 잘 나오고 뭐 난방 시설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만큼은 안 추운 것 같아. 옛날엔 목화솜 틀어서 옷 속에 넣어 입고 그랬는데. 한겨울엔 두꺼운 이불 덮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서 눈썹이 하얘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향아리에 넣어놔다가 꺼내

먹고 그랬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제 기억엔 그래요.

● 동네 분들과 추어탕도 같이 끓여 드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동네에서 미꾸라지도 많이 잡고 했으니까 같이 모여서 끓여 먹었죠. 옛날에 추탕 끓일 때는, 도살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소 기름 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안 먹지만, 옛날에는 그 기름 덩어리를 가져다가 처마에다가 걸어놓고, 음식 만들 때 조금씩 베어다가 썼거든. 추탕 끓일 때도 그런 걸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니까 그걸 넣으면 국물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맛에 먹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에 돼지고기 먹고 배탈 안 나면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땐 기름진 걸 잘 못 먹으니까 배에 기름기가 없어서, 기름진 게 들어가면 설사하고 배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돼지고기 먹을 생각 안 했어. 먹고 나면 화장실 들락날락하기 바쁘니까.

추탕 끓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알아주는 사람은 집에서 고추장 퍼오는 사람이 1순위야. 서울식으로 끓이는 건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2순위는 기름 덩어리 가져온 사람. 그다음 순위는 찬밥 가져오는 사람. 동네 어디 동산에서 솔단지 걸어놓고 끓이면은 대접에다 놓고 떠서 먹는 거야, 국물 먹기 바쁘지 뭐. 한 번 먹을 때 보통 1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서 먹고 그랬어.



1970년대 초, 동네에서 주민들과의 모임

덕온공주 일가 이야기

- 옛날에 조선 23대 왕 순조의 딸인 덕온공주의 묘가 장위동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해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 일가가 장위동에 살았다는 것은 알지요. 덕온공주의 묘나 공주의 남편, 그 부마 윤의선 대감의 묘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요. 덕온공주의 언니 되시는, 복온공주⁴⁶⁾인가요? 그분이랑 그 남편인 김병주⁴⁷⁾, 그분의 묘는 지금의 북서울꿈의숲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쪽에도 김가네 묘가 좀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꿈의숲 있는 동네를 ‘공주 능’이라고 부르긴 했어요. 지금도 공원 안에 창녕위궁 재사(昌寧尉宮 齋舍)⁴⁸⁾가 있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재사예요. 근데 그 묘도 아마 용인으로 이전했을 거예요.

장위2동에 윤의선 대감이 사시던 집이 아직 남아 있어요. 남녕위궁 재사(南寧尉宮 齋舍)⁴⁹⁾라고 덕온공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쪽에 그 집을 짓고 사셨대요.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어서 김진흥 가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아무튼, 그 집에서 윤의선 대감의 양자 윤용구 대감도 살았다고 해요. 덕온공주가 임신하셨을 때 돌아가셔서 자녀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윤의선 대감이 양자를 들이셨다고 해요. 윤용구 대감의 묘는 어렸을 때 봤죠.

46)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는 조선 23대 왕 순조와 순원왕후의 둘째 딸이다.

47) 복온공주의 남편으로 혼인 후 창녕위(昌寧尉)로 봉해졌다.

48) 복온공주와 부마 창녕위 김병주의 재사. 북서울꿈의숲(강북구 월계로 173) 내에 위치한다.

49) 덕온공주와 부마 남녕위 윤의선의 재사. 성북구 돌곶이로34길 4-11에 위치한다.

● 묘의 위치가 어디였나요?

옛날 한전 성북지점 자리였는데, 그쪽 가서 놀기도 했어요. 그 밑에 연못이 있었고. 그리고 용마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흙으로 한게 아니고, 축대를 쌓아서 기와를 쪽 늘어놨어요. 그래서 여름밤이면 거기서 박쥐가 날아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사금파리라고 그래요, 사금파리. 하얀 사기그릇 깨진 거. 그릇 깨진 거 갖다가 조각내서 박쥐 날아갈 때 위로 휙 던져요. 던지면 박쥐가 밝은 데는 피하니까 그거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여름엔 그거 보느라고, 재미로 그렇게 했죠. 어려서. 내가 태어난 집 바로 위쪽이 동산이거든. 거기서 그 짓을 많이 했죠. 윤용구 대감 묘 부근에서 박쥐가 날아오니까.



돌곶이로 157에 위치했던 한국전력공사 성북지점

● 그 묘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었나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묘지를 파묘하는 건 봤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였어. 그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고, 그냥 그 묘지를 판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관 뚜껑을 열어놔는데, 옴하고 그러면 저거 뭐야, 삼베 옷을 입히잖아.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비단이 있더라고. 내 기억에 그때 그걸 잭나이프로 짹 찢는데, 잘리는 소리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날 정도로 내가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 비단은 청색? 그런 색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유물 같은 건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참관하는 사람들은 좀 많았죠. 그때 당시에 동네에 윤가네 묘가 좀 있었거든요? 그분들 묘도 다 하고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다 이장했지.

● 그 외에 다른 에피소드는 없나요?

아, 그리고 덕온공주의 상여가 있었는데, 궁에서 만든 거니까 아주 컸죠. 48명이 밀어야 했으니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걸 나중에 여기 동네 사람들이 하사를 받았지.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그 상여를 썼어요.

그걸 쓰려면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부잣집은 그걸 썼는데, 그 큰 상여가 나갈 때 논두렁이 있잖아요. 그 좁은 논두렁을 건너가는 게 기가 막히죠, 기술이. 어떻게 보면 기술일까? 그 많은 사람이 한 줄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두 줄로 해서 상여를 메는데, 좁은 길을 지나갈 때는 한 사람은 빠져. 그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소리꾼이라고 그러죠? 상여 메고 갈 때 앞뒤로 종을 흔들

면서 뭐, 에헤이 이려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후창을 하면서 가는 거야. 우리 어려서는 그런 것도 직접 봤지.

그래서 상주독⁵⁰⁾이라고, 독에다가 그 상엿집⁵¹⁾을 만들어 놓고 보관을 했는데 한천로가 뚫리는 바람에 그 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관할 데가 없잖아, 상여를. 그래서 그쪽 동네 사람들이 그걸 용인 민속촌에 기증했어요.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얘기를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했더니 나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50) 지금의 장위3동 주민센터(한천로 657) 위치.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장위동: 도시 주거 변천의 파노라마』, 서울역사박물관, 2021, 72쪽)

51) 상여와 그에 딸린 여러 도구를 넣어 두는 초막.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장위동 김진흥 가옥 (출처: 서울연구원)



장위동 김진흥 가옥 (출처: 서울연구원)

15

변화 속 여전한 나의 생활 터전



2020년 장위동 일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도시화의 시작

● 동네 풍경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주택들 들어오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전부 밭에 가면 호박 같은 거 그냥 짝 심고 이랬을 때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온 데가 공병주택, 다시 말해서 재건주택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흥주택⁵²⁾이라고 들어왔고 그랬죠. 그리고 몇 년 후

52) 대한주택영단은 1958년 과거 경춘철도주식회사 소유 부지였던 장위동 68번지 일대에 부흥주택 171세대, 재건주택 200세대를 건설했다. 부흥주택은 산업부흥국채를 재원으로 하고 재건주택은 직접적인 원조 대신 입주자가 공사비의 20%를 먼저 부담한 후 장기간에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둘 다 정부가 일반 국민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여 공급한 주택이다. 전체 건축면적은 4617.5평으로 재건주택은 2호 연립, 부흥주택은 4호 연립 복층 형식으로 지어졌다. 재건주택과 부흥주택은 건축 이후 1960년대 초 필지가 각 호별로 분할되어 개인 소유가 되었다. 2020년 현재 재건주택은 10여 호 남아 있다, 부흥주택은 처음 지어진 43동 중 36동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재건주택을 관통하는 남북도로에는 장위골목시장이 들어섰고 시장에 먼

에 국민주택⁵³⁾이 한쪽에 들어왔고. 또 동방주택⁵⁴⁾도 생겼고요. 그렇게 되니까 외부에서 이쪽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지. 그래서 토박이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좀 유식해 보이고 그랬어요, 그 때는. 우리는 농사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은 안 하니까.

● 가장 먼저 들어온 재건주택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재건주택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공병주택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면 군인이, 공병이 와서 돌을 쌓아서 지은 집이 있거든요. 아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요. 저기 저 장위11구역. 그쪽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랑 홍릉 근처에도 지었어요, 그때. 홍릉 그쪽 동네가 먼저 지어졌을 거예요. 내 기억에는 홍파초등학교⁵⁵⁾ 뒤쪽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택은 상가로 바뀌었다.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도시 주거 변천의 파노라마 : 장위동』, 2020)

53) 장위동 국민주택단지는 1962년부터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형성된 주택단지이다. 국민주택은 정부시책으로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 또는 귀속재산처리적금 중 주택자금용자에 의해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으로, 단독형으로 조성되었다.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54) 1960년대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현 삼성생명)이 장위동에 조성한 주택단지이다. 성북구의 동방주택단지는 정릉동과 장위동에 건설되었는데 장위동이 정릉동보다 4.6배 가까이 규모가 컸다.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정확한 구역 경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967년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동방생명 10년사』에 따르면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총면적이 162,170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장위1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장위로의 북쪽 구역이 동방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구역에 있는 ‘동방어린이공원’과 ‘동방주택’ 정류장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단독주택들은 동네에서 오래된 주택단지 골목 풍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55)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18에 위치. 1960년 7월 5일 개교하였다.

● 주택의 구조는 어땠나요?

그 집 구조를 보면 2층은 옛날로 얘기하면 다다미(たた미)⁵⁶⁾방. 일본식으로, 돛자리 있잖아요? 그걸 깔아서 만드는 거 있어요. 그게 따뜻하거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작은 건 7~8평 정도밖에 안 되죠. 좀 큰 집은 14~15평 정도? 그런 식이었어요. 돌로 축대를 쌓듯이, 벽을 쌓아서 지었는데 다른 집들이랑 비교해서 길었어요. 땅콩집 처럼 하나를 길게 지어서 가운데를 막고 문을 양쪽에 내고, 2층으로 두 세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죠. 1층이 있고, 나무 계단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1층에는 주방이 있었죠. 조그만 마루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는 밑에 온돌방에서 자고 자식들은 위에 올라가서 다다미방에서 자고 그런 식이지, 뭐. 층마다 방이 하나씩밖에 없었으니까. 화장실은 재래식이죠. 지금은 양변기 다 났을 거예요.

● 그다음에 부흥주택이 들어왔나요?

국민주택이 들어오기 전에 부흥주택이 먼저 들어왔죠. 부흥주택도 벽돌 쌓아서 지었는데, 국민주택보다는 좀 덜 튼튼했던 것 같아. 그리고 국민주택보다 좀 작았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큰 데가 25평인가? 그랬다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여기 들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청약하듯이 ‘거기에서 살면은 보조금 얼마

56) 일본식 주택에서 짚으로 만든 판에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돛자리를 붙인 방바닥에 까는 재료.
(출처: 두산백과)

줄게,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그래. 그 사람들 보조금 받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러더라고. 여기 버스도 없었을 때였어요. 지금 장위초등학교 옆으로, 장위시장이 있죠? 그 시장 골목이 길게 쪽 있는데, 파출소 옆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시장 골목을 따라서 양 옆으로 부흥주택이 있었죠.



1958년에 지어진 장위동 부흥주택



주택의 지붕과 외벽

● 국민주택도 기억하시나요?

이때 기억나는 게, 저희 어려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위에 돌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장위산에 돌이 많다고 그랬죠. 그 돌을 가져다가 망치로 깨서 한 틀을 채우면 얼마를 줘. 그 당시 때 내가 기억하곤 한 3원 준 거 같은데. 아마 장위동 옛날 토박이 중에 그거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에 실컷 만들어야 하나 반이나 할까? 그 정도. 어렸을 때니까 조그만 놈들이 뭐 하겠어. 내가 그래서 그때 며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국민주택이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들어왔다는 그런 기억은 있어요.

그게 지금의 장위 11-2구역, 거기에 국민주택이 있었어요. 부흥주택보다는 평수가 넓었어요, 국민주택이. 한 45평? 50평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벽돌, 블록이라는 걸로 짓는데 그게 중앙산업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개운산 밑에 돌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중앙산업이라고 전신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 그 블록을 찍어서 구워서 나오는 거라 망치로 못을 때려도 못이 안 들어가. 그렇게 단단해요. 그 정도로 단단한 걸 가져다가 지었어요, 8인치 블록 넓은 거. 그런 블록으로 지었으니 국민주택이 상당히 튼튼했어요. 부흥주택은 이거보다는 좀 약해, 건물들이. 지금 보면 이 건 기초도 단단하게 했는데, 국민주택은.

근데 지금 국민주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부흥주택은 남아 있을 것이고 15구역에 몇 개 정도는 남아 있을 것이고 옛날에 고건⁵⁷⁾ 서울시장 있죠? 그분이 여기 살았죠. 여기 살다가 농수산

57) 고건(高建, 1938~)은 제30대, 제35대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제22대, 제31대 서울특별시 시장을 역임하였다.

부 장관 하면서 이사 갔지, 아마?



1964년 장위동 국민주택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 새로 지어진 주택들은 장위동 선주민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대상이었나요?

여기 주민은 그 주택에 못 들어갔어요. 전부 외부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원래 살던 주민들 하고 좀 다투기도 했어. 좀 텃세를 부렸던 거지. 근데 그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좋았던 거 같아. 왜 좋으냐? 그래도 문 안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 그러면 동방주택이 지어질 때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방주택이 이거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고개 그 주위, 장위1동 산꼭대기에 터를 닦을 때 장위동뽕이 아니고 지금 미아동이죠? 북서울꿈의숲 뒤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동방생명⁵⁸⁾이라는 회사에서 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를 닦고 거기에서도 조금 나온 지역은 평수를 넓게 했고, 장위산 쪽으로는 좀 가파르니까 터 닦으면서 좀 적게 만들고. 거기가 부촌이었어요. 부자들만 들어왔어. 그리고 장성들도 많이 살았어요.

● 군인들이 많이 살았군요.

네, 이쪽에 많이들 살았어요. 유명한 분들 많이 살았어요. 고건, 전에 총리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신 분이 여기 살았죠. 노재현⁵⁹⁾ 국방부 장관도 거기 살았고, 배우들도 좀 있었죠. 허장강⁶⁰⁾이란 된 배우도 여기 살았었고. 그다음에 배우 문희⁶¹⁾. 그분도 그쪽에 살았어요.

그게 원래 산인데 동방생명이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주택 단지를 만드는 거지. 공사할 때 기억이 많이 있죠. 그게 옛날 돌산을 깎고 한 거니까. 산 양쪽을 다 깎아서 했고, 공사할 때 지금 북서울꿈의

58) 1957년에 설립한 보험회사. 1963년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1989년 삼성생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두산백과)

59) 노재현(盧載鉉, 1926~2019)은 군인, 정치가이며 제21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

60) 허장강(許長江, 1925~1975)은 연극 및 영화배우이자 영화 기획가이다. 1954년 영화 <아리랑>의 주연으로 데뷔하였다.

61) 문희(文姬, 1947~)는 1965년 영화 <흑맥(黑麥)>으로 데뷔한 영화배우이다.

숲 자리, 거기 정상에서 보면 다 보였어요.



강위지구 동방주택단지 조성 (출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동방생명 10년사』, 1967)



동방주택단지의 현재 모습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 그 이후에도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생겼죠?

서울은 거의 다 그랬을 것 같은데, 하루 자고 나면 집이 몇 개씩 늘어나요. 집을 판 사람들이 그다음 날 바로 후회한다는 거예요. 1970년대 초반에만 해도 집 한 채에 80만 원 정도밖에 안 값었던 건데, 그 뒤로 집을 많이 짓고 나니까 500, 800만 원이 넘어가고 천만 원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자고 나면 200, 300만 원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외부 사람이 들어오니깐, 사고 들어오고 사고 들어오고 그런 거죠.

주택이 개발되고 차편이 늘었죠

● 장위동에 버스는 언제부터 운행되었나요?

버스가 우리 어려서, 우리 초등학교 때 들어왔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나 2학년 때 들어온 건데, 그전에는 버스 타려면 종암동까지 나가야 했어. 종암동까지 가야 버스가 들어오니깐.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4.19 이후였던 것 같아요, 1960년대 초반 정도. 집에서 조금 나오면 종점이 있었지. 간이 종점이라고 들어왔어요. 버스가 여기서 반환점으로 나가고 그랬었지. 그것도 차가 2시간에 한 번 정도 다니는 때였으니깐. 그 전에는 동대문까지도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주택들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좀 들어올 때쯤에서는 차편이 좀 늘었죠. 사람들 들어오고서는 시발택시도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니고 했지. 버스 배차시간도 한 30분으로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교통이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좀 편리해지는 건 있고.

● 예전에 이 부근에 경춘선⁶²⁾ 기차가 다녔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 월곡2동 주민센터 있는 곳에 예전에 경춘선 기차역이 있었어요, 월곡역. 한 19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민센터 너머가 철길이었어요.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동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월곡역을 거쳐서 화랑대로 해서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인데, 옛날엔 그 기차를 기동차라고 그랬어요. 전차 말고, 앞뒤로 끄는 기동차, 디젤로 가는. 엔진이 두 동인데 앞뒤에 엔진이 달린 거예요. 그런 두 동짜리 기동차가 다녔어요, 여기에. 그 기차가 춘천, 가평, 청평, 마석 이렇게 쪽 나가는 건데. 친구들과 기차 타고 다녀보기도 했었지. 사람 타고 다



1974년 포장공사가 완료된 장위동 거리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62) 1939년 7월 25일 사설인 경춘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성동역(城東驛) ~ 춘천 사이의 구간이 개통되었으나, 서울의 시가지 확장에 따라 성동역 ~ 성북역 구간은 철거되고, 성북역을 기점으로 하는 단선철도가 되었다.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을 달리던 열차 운행은 폐지되고,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닌 거는 기동차가 다녔고 나머지는 미군들이 기름 싣거나 뭐 운반할 때 많이 다니더라고. 성동역 부근에 예전에 기름 탱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싣고 운반했던 것 같아.

아파트 숲으로의 변모

● 장위동도 재개발이 많이 진행됐는데, 언제부터 장위뉴타운⁶³⁾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재개발 지정은 2005년쯤 됐고,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죠. 그때만 해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안 한다고 그랬죠. 없는 사람은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원래 살았던 주민들은 재개발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 친구들도 그때 집 팔고 나간 놈들이 있는데, 지금 잘 살아요. 공릉동으로 한 명 갔고, 월계동으로도 한 명 갔고. 집값 오를 때 팔고 나가서 돈 벌었죠. 그게 운 때가 잘 맞은 거고. 지금도 집을 가지고

63) 장위뉴타운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186만 7,000㎡의 땅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만 3,846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출발했다. 2005년 제3기 뉴타운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서울시 35개 뉴타운 중 최대 규모라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닥치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자는 주민과 사업성이 없다며 그만두자는 주민 사이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다가 2014년 장위12구역을 시작으로 13구역(2014년), 8·9·11구역(2017년), 15구역(2018년)까지 6곳이 뉴타운 사업을 접게 됐다. 이후 장위뉴타운 규모는 절반인 91만 8,901㎡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장위뉴타운 동쪽은 재개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꿈의숲코오롱하늘채(장위2구역·2017년 10월 입주)’,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장위1구역·2019년 6월 입주)’,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장위5구역·2019년 9월 입주)’, ‘꿈의숲아이파크(장위7구역·2020년 12월 입주)’ 등이 잇달아 사업을 마쳤다. 4·6·10구역도 재개발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마쳤다. (출처: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자료집)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괜찮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 뉴타운 사업이 시작될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개발된다니까 좋았죠. 동네가 모습이 변하긴 해도 깨끗해지니까.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뭐, 개발되면 전부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하니까 주차난도 해결되고. 그 전에 장위1동에서 주차 때문에 싸움 난 것도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개발이 되면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이 살려면 그건 참 어려운 문제지. 이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도 문제 아니에요.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아파트에 사는 것과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일단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관리비다 뭐다 해서 꼬박꼬박 내야 하잖아. 그래서 서로 재개발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르긴 했죠.

● 개발 당시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았나요?

그건 뭐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거는 어느 지역을 가나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반대해서 지금 해제된 구역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근데 해제된 구역도, 나중에는 후회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할 때가 되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그냥. 다시 하고 싶어도 그게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지정되려면 10년인가 15년이 더 지나야 한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 하다 보니까 시

작된 게 가로주택정비사업 있죠? 그거를 하는데 그건 층고 제한이 낮더라고요. 15층 이상은 안 주고. 그러니까 좀 아쉬웠겠지.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제한을 좀 풀어준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25층까지 제한을 풀겠다고. 근데 아직 정확히는 잘 몰라요.



2020년 장위2구역 전경 (출처: 서울연구원)

● 선생님도 이사를 하셨나요?

저도 이 동네를 떠났죠, 살림집은. 영업만 여기서 하고 있지 살림집은 떠난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장위10구역에 살다가 떠났으니까. 그런데 다시 들어오겠죠, 뭐. 사실 고양군 송인면에 사는 건 마찬가지로예요. 우이동도 장위동이랑 같은 송인면이었으니까. 이사 간 곳에서도 주변에서 물어보면 같은 송인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장위동에서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고향을 떠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향우회에서도 여태 총무를 하고 있고, 집안의 일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

● 같은 동네에 사셨던 이웃분들과 헤어지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어느 지역으로 가셨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건 뭐 요 주위예요, 다. 다시 들어올 사람들이니까. 안 들어올 사람은 멀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뭐. 우리 친구 하나는 나하고 한 두 블록 떨어져서 살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여기 공릉동. 하나는 중랑구 묵동. 또 하나는 창동 이런 식이에요. 거의 뭐 이 주변에서 살죠.

● 장위시장도 재개발 때문에 절반이 사라졌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주변에 시장이 정말 많았는데…. 장위시장은 구장위, 신장위라고 시장 두 개가 바로 붙어서 생겼죠, 장위초등학교 옆으로. 그게 지금 장위10구역 재개발 때문에 위쪽 절반 정도는 철거됐어요. 큰 시장이었는데 반으로 줄었죠.

음… 다른 시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건너가서 월곡역 바로 건너편에 새석관시장이 있다가 지금 주상복합이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헐었고. 석관동에는 돌곶이에, 논 가운데다가 만든 석관시장이 있고. 또 건너와서 장위동 쪽으로 보면 아랫말, 아랫말에 장석시장이라고 또 하나 생겼죠? 장석이라는 말은 장위동, 석관동을 합쳐서 장석. 옛날에 장석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장위동이라고 부르다가 장석동이라고도 불렀었어요. 그다음에 석관동이 다시 떨어져 나갔고.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는 저 번동 쪽, 지금은 이제 장위3동으로 편입이 됐는데. 거기에 번동시장이라고 또 생겼었고. 그다음에 쪽 올라오면 명덕골에 그… 장계시장. 장계시장이 두 군데

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곡초등학교가 생기면서 그 앞에 생겼고. 간이 시장이죠, 장계시장은. 장곡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염광전수학교가 있던 자리지요.



장위전통시장 입구(2019.03.22.)



재개발 반대 현수막(2019.03.22.)

● 재개발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해졌는데, 예전에 이 근처에 드림랜드라는 놀이공원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죠. 그게 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몇 번 갔었죠. 근데 애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자주 가진 않았어요.

그게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갔죠. 그게 아마 2008년일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지금의 북서울꿈의숲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놀이공원일 때는 입장료도 내고 그러던 게 꿈의숲으로 바뀌고 나서는 없어지고, 주민들이 가서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자주 가거나 하진 않죠.



1987년 드림랜드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향우회 총무 맡은 지 20년이 됐지

● 지금도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동네 친구들이요? 있죠. 지금 또 향우회도 하고 있으니까. 향우회에 어렸을 때 친구들 5명이 모여 있어요. 처음에 향우회를 시작할 때, 1982, 3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회원이 45~5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돌아가시고 연세도 드셔서 한 18명 계신 것 같아. 거기서 지금 총무를 맡고 있죠.

● 총무를 오랜 시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20년 됐지, 지금 총무 맡은 지. 2002~2003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향우회가 장남만 들어가게 만들어 놔있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차남은 못 들어가고, 막내도 못 들어가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다가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차남으로 향우회에 들어간 게 내가 1호 같아. 내가 장사할 때니까 우리 집에서 모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부터 총무를 맡기네? 그래서 여태까지 총무를 하는 거야.

● 모임 초기와 비교하여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우리 향우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나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한국전쟁이 휴전된 해 1953년생 전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토박이들. 여기에서 태어났어도 53년생 이전 출생이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 토박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못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늘립시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1965년으로 만들어 놔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와.

회비를 걷는데, 전에는 75세가 되면 그 돈을 나눠줬어요. 자기 지분을.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받으시면 그 뒤로는 모임에 안 나오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80세로 늘려놔지. 늘려놔더니 또 그런데도 안 나와. 그래서 지난 7월 모임 때 제시를 했죠. ‘우리 회비 돌려주는 걸 없애버리자. 그거 주는 거 없애자.’ 그랬더니 연세가 되셔서 한 2~3년 후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분이 반대하셨죠. 아무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 지금은 정기적으로 회원분들과 만나시는 건가요?

매달 10일 날 여기, 우리 식당에서 모여요. 특이한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추탕 끓이는 게 있어. 서울식으로 추탕을 끓여서 먹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곰보 추탕’이라든지 ‘형제 추탕’이라든지 그런 식당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서울식으로 끓이는 곳은 지금 중구에 용금옥이라는 데가 있어. 유명하지 거기. 근데 이게 잘 없으니깐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걸 먹어보지 못하잖아. 돈 주고도 못 사 먹으니깐 향우회 모임 때 그걸 안 끓이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끓이는 거야. 제가 직접 끓이죠.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잘 끓여요. 여기 사람들 다 끓일 줄 알아. 그렇

게 모여서 술 한 잔 먹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나누고 하죠.



주민들과 함께한 양양 나들이 (2015.10.20.)

여전한 생활 터전, 장위동

● 계속 장위동에 사시다가 강북구 우이동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2017년에 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살던 장위10구역이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집사람이 아파트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공릉동으로 갈까 했더니 거기는 또 대부분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가 지금 간 데가 4·19 사거리. 그쪽으로 갔는데, 조용은 해요. 근데 금방 다시

이사 나올 것 같아요

출근할 때는 경전철 타고 갈아타서 오고, 퇴근할 때는 버스 한 번만 타면 그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120번. 그래서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 선생님께 장위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인가요?

의미, 글썄요. 내가 여기서 무슨 큰일을 한 것도 없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곳에서 절 낳으셨으니 저의 고향이 된 거고, 여기서 성장 과정을 다 겪었으니까 애정은 있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나는 가끔 우리 동창들한테도 그런 얘길 해요. “나는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려고 살아서 내가 크게 못 하는데, 너네는 동창회하고 뭐 한다고 하면 돈 좀 내서 모교도 좀 도와주고 그래.”하고. 그것도 안 하고 큰소리만 치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걸 왜 모교에다 못 내놔? 그렇잖아.

친구들한테도 모임을 한 번 열자고 얘기를 했어. 날짜를 잡아서 내가 먹는 건 제공할 테니, 모여서 회비를 조금씩 걷어서 기부를 해보자고. 회비는 5,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좋다고. 일단 운은 띄워놔으니까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 있겠어. 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식당을 정리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여행을 좀 할까?’, ‘뭐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까?’ 사실 난 여태 살아오면서 친구들

하고 사귀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건 원 없이 했다고 봐요. 집사람이나 가족이나 가정보다도. 내가 베풀면 베풀지 친구들한테 뭐 술 한 잔 얻어먹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다 참아준 집사람이 고맙지.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집사람하고 아마 정다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소통이 별로 없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소통도 좀 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다.

● 계속해서 성북구에서 생활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고향인데, 뭐. 터전이고. 지금은 이사 갔다고 해도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잖아요. 다시 들어와도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 고향 분들 사투리가 있어요. 경기도 사투리가. ‘얼랑’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가 아니라 ‘얼랑얼랑 해’ 뭐 이런 식의 사투리도 가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건 이 동네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뭐. 친구들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야, 너 그거 어디 말이냐?” 그러면 “여기, 송인면 사투리야.” 그러고 말지 그냥.





소화기

에필로그Epilogue

성북구의 과거와 주민의 생애에 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보문동과 장위동을 중심으로 당시 복개되어있던 성북천, 그리고 한옥과 부흥주택에 관하여, 또 과거의 전차노선까지 오늘날 볼 수 없는 모습들을 생생한 구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구술채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여 성북의 기록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어 뜻깊습니다. 이끌어주신 오제연 교수님과 성북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 강호근

이 이야기를 남기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역사는 먼 사건이 아닌 우리 삶에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자, 성북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구술자 분들이 살아오신 생애를 통해 보문동과 장위동의 과거 모습과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주신 성북문화원과 구술생애사에 대해 알려주신 오제연 선생님, 이 과정을 함께 하신 주민기록단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지

2022년 하반기,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 8주가량 주민기록단 교육을 들으며 구술사와 성북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교수님의 강의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 실습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덕수 선생님께서 사려 깊은 태도로 꼼꼼하게 구술에 임해 주신 덕분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북구 지역의 역사를 한층 깊이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선생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책자가 이후 주민기록단 교육, 나아가 구술사 공부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재훈

주민기록단 교육을 통해 성북에 오래 거주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면서 역사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녹아있는 성북구의 역사를 직접 들어보면서 알지 못했던 성북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한 권의 책이 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재미있었습니다. 구술기록이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에 대해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성북문화원 담당자분들, 이야기해주신 구술자 선생님분들, 그리고 함께 교육받고 기록했던 주민기록단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류지연

우연한 기회에 성북문화원의 아카이브를 방문해서 성북구에 대한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북구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고 있는 동네와 주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만, 동네에 대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민기록단의 공고를 보게 되었고, 동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구술을 통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정리되는 과정들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술자를 만나서 직접 그분의 경험과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 당시의 마을의 모습들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 듣는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졌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의 한 편을 경험하게 된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 신해영

성북구 장위동에 사셨던 토박이 우덕수 선생님의 구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위동의 도시화 물결 속에서 살아오신 선생님께서는 기억을 더듬으며 지역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지칭하던 단어인 ‘토박이’는 장위동 우덕수의 삶을 되짚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북구 주민기록단의 구술생애사 교육을 통해 지역에 살아오신 마을 주민을 주체로 역사 쓰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

니다. 지역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닌 주민들의 구술사가 지속되며, ‘서울’이라는 중심이 아닌 ‘성북’이라는 지역 문화가 지닌 역사적 경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윤소영

우덕수 선생님은 장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토박이이십니다.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들려주신 선생님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동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장위동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꺼내어주신 구술자 우덕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교육을 진행하시며 주민기록단을 이끌어주신 오제연 교수님과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고 구술생애사 시리즈 발간 작업에 함께 해주신 주민기록단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장지희

이미지 출처

- 14쪽: 남윤중 촬영
- 18쪽: 남윤중 촬영
- 27쪽: 서울역사아카이브
- 34쪽: 남윤중 촬영
- 44쪽: 우덕수 제공(상)
- 44쪽: 우덕수 제공(하)
- 45쪽: 우덕수 제공(상)
- 45쪽: 우덕수 제공(하)
- 48쪽: 우덕수 제공
- 54쪽: 남윤중 촬영
- 60쪽: 서울역사아카이브
- 62쪽: 서울역사아카이브
- 65쪽: 서울역사아카이브
- 71쪽: 서울역사아카이브
- 73쪽: 서울역사아카이브
- 78쪽: 우덕수 제공
- 80쪽: 성북마을아카이브
- 83쪽: 서울연구원(상)
- 83쪽: 서울연구원(하)
- 86쪽: 서울역사아카이브
- 90쪽: 남윤중 촬영(상)

90쪽: 남윤중 촬영(하)
92쪽: 서울역사아카이브
94쪽: 『동방생명 10년사』 (상)
94쪽: 서울역사아카이브(하)
96쪽: 서울역사아카이브
99쪽: 서울연구원
101쪽: 성북마을아카이브(상)
101쪽: 성북마을아카이브(하)
102쪽: 서울역사아카이브
105쪽: 우덕수 제공
108쪽: 남윤중 촬영

성북구의 동북쪽에 위치한 장위동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으며, 이 일대에 위치하던 여러 마을이 합쳐져서 장위동이라는 지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선 후에는 도시 개발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들어섰고 부촌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장위뉴타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화의 큰 변화를 겪은 장위동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도 많지만,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토박이’도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우덕수 님입니다. 장위동의 새로운 모습과 동네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덕수 님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